

사랑—神 없는 世界에서의 救援의 길

—金恩國 作 <殉教者>論—

張 良 守*

目 次

I. 序 論

II. 聖職者들에 의한 神의 不在證明

III. 神 없는 세계에서의 救援

IV. 結 論

I. 서 론

<殉教者>는 金恩國이 1964년 美國에서 <The Martyred>란 이름으로 英文으로 발표한 소설이다. 1932년 咸鏡南道 咸興 태생의 이 작가는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자 월남하여 서울대학교 상대에 재학중 6·25 사변을 맞았다. 장교로 입대하여 제대를 한 그는 1954년 美國으로 건너가 그 곳 미들베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 수학한 다음 하바드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殉教者>는 그가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써서 제출한 소설이다. 그는 처음 이 소설을 뉴욕의 유명 출판사 더블데이와 출판 계약을 맺었으나 출판사 측에서 전투장면이 없다, 여자가 안 나온다 하여 작품에 간섭을 하려 하자 계약금을 돌려 주고 조지브레저사를 통해 출판을 했다. 이 책은 출판이 되자 곧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첫해에 15

* 東義大 國文科 교수

만 부가 팔리는 등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찬사도 대단한 것이어서 『뉴욕 타임스』 북 리뷰는 <殉教者>가 도스토예프스키·알베르 카뮈 등의 문학세계가 보여 준 위대한 도덕적 및 심리적 전통을 이어 받은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새터데이 리뷰』도 이를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품위가 있는 소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내용 뿐 아니라 문장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타임』誌 같은 경우는 작가가 이 작품에서 영어 사용 국민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영어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 작품은 발표 직후 우리 말로 번역, 출판이 되어 상당히 많은 韓國 독자들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의 이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여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 소설이 정통 韓國文學의 범주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韓國文學이 되려면 무엇보다 韓國 사람이 韓國人의 말과 글로 韓國人의 생활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작가 金恩國의 국적이 韓國이나 美國이나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韓國人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 韓國에서 성장했으며 韓國에서 교육을 받았고 韓國人으로서 共產侵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인 이상 현재의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무의미한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겠기 때문이다. 또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韓國人의 생활 감정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아 이 점에서도 이 작품을 韓國文學이라 한다 해서 잘못 될 것은 없다. 문제는 이 작품이 영문으로 발표되어 거기에서 부러 쓰여진 말과 글에 있다. 이 작품은 90년 이전에 張旺祿에 의해 한번, 都正一에 의해 다시 한번, 두 차례에 걸쳐 韓國語로 번역, 출판이 되었었다. 작가 아닌 타인에 의해 韓國語로 번역 출간된 소설을 韓國文學이라고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평문을 쓴 한 사람이 이 작품이 외국어로 씌어졌고 작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國譯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감명이 반감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도¹⁾ 바로 이 점을 말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침 1990년에 이 작품의 세번째 번역판이 나왔다. 더욱 반가운 것은, 이번에는 「작가의 뜻이 정확히 전달된 韓國版 定本」이 갖고 싶어 작가 자신이 韓國語로

1) 이동하, “韓國小說과 救援의 문제”, 『현대문학』, 1983. 5. p. 410.

써서 스스로 이를 「우리말 결정판」이라고 이름지어 출판을 했다는 사실이다.²⁾ <殉教者>는 이미 世界文學의 대열에 기여든 작품이라 하겠지만 굳이 그 뿌리를 찾는다면 韓國·韓民族을 두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문학일 수도 없다. 작가가 이번의 번역본을 굳이 「우리말 결정판」이라 한 한 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서슴없이 이를 韓國文學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韓國語 판 <殉教者>를 한 편의 國文學 작품으로 정면에서 연구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더구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의 이해에 있어서는 어느 외국인보다 韓國의 비평가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國文學界에서의 연구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은 얼마간 있었지만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비록 약간의 모험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쯤은 이 소설에 대한 한 편의 試論이 나와도 좋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글을 쓰기로 했다.

II. 聖職者들에 의한 神의 不在證明

이 소설의 시간배경은 6·25사변의 발발 직전에서부터 사변 이듬해 5월까지 약 1년이고 장소적 배경은 주로 유엔군 장악 하의 平壤이다.

<殉教者>는 半探偵物이라고 불린 데서도³⁾ 알 수 있듯이 한 편의 미스터리 소설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6·25사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투 신이 나오지 않듯 미스터리 소설 같으면서도 그러한 서사물에 흔히 등장하는 범죄의 진상 규명이나 범인의 추적 같은 것은 없다. 이 소설의 미스테리는 神과 人間 靈魂의 문제라는 독특한 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한 특성이자 이 소설 특유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殉教者>는 두 개의 수수께끼가 던져져 그것이 하나 하나 풀려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첫번째 수수께끼는 6·25사변이 나기 직전 北韓의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에

2) 김은국, “독자에게 드리는 글”, 『순교자』(울유문화사, 1990), p. 1.

3) 徐沈善, “苦痛과 希望과 사랑”, 『韓國文學』1985. 6, p. 308.

끌려간 후 소식을 모르게 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韓國軍 정보당국에 들어온 그에 관한 제일보는 ‘수 미상의 北韓 기독교 목사들’이 행방불명되었는데 ‘빨갱이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믿어진다’는 극히 막연한 것이었다. 平壤 주둔 韓國 육군본부 파견대 정치정보국장 장대령은 전쟁이 나던 날 목사들이 모두 총살되었다는 정보를 얻는다. 이로써 사안은 목사들의 행방불명에서 그들의 사망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진상은 여전히 불확실한 채로 있었다. 방첩대의 조사에 의한 정보 보고는 피살된 목사의 수가 열넷이라는 것과 열둘이라는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소설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그들에게 붙들려 간 목사는 모두 14명이었는데 그 중 12명은 피살되고 나머지 두 사람, 신목사와 한목사는 살아남아 平壤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살된 12명의 목사들은 금방 敎職者들과 신도들로부터 殉敎者로 열렬한 추앙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하여 12명이 다 죽는 상황에서 그들 두 사람만이 살아 남을 수 있었는가가 장대령의 의문이자 독자의 궁금증으로 떠오른다. 살아 남은 두 사람의 목사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장대령으로부터 그들이 죽은 목사들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목숨을 건진 것이 틀림 없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 그러나 목사들을 총살한 北韓의 平壤市 비밀경찰 소속 정소좌가 붙들려 옴으로써 진상은 명백하게 밝혀 진다. 그는

“—前略— 자, 여러분 당신들 위대한 殉敎者들이 어떻게 죽었나 알고 싶다고 했소? 내가 당신네의 그 위대한 영웅, 위대한 殉敎者들이 꼭 개처럼 죽어 갔다는 얘길 들려 줄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이요, 꼭 개새끼처럼 훌쩍거리며, 깡깡거리며, 엉엉 울면서 죽어갔어! 살려달라 아우성 치고, 자기네 신을 부정하고 동료들을 혈투는 꼬락서닌 과연 보기만 해도 즐거웠어. 그들은 개처럼 죽은 거야! 개처럼, 알겠어? 모조리 죽여 버렸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해 죽은 12명이 殉敎者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었던가도 밝혀진다. 한목사는 그와 같은 극한상황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지 않아 살아 남게 되었고 신목사는 정소좌에게 대항한 것이 거꾸로 죽음을 면하게 된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정소좌는 신목사에 대해

“그는 내게 감히 대항해 온 유일한 친구였어. 난 당당하게 싸우는 걸 좋

아해. 그 자는 용기가 있더군.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만큼 배짱있는 친구는 그 자 하나 뿐이었어. 난 내게 침을 뱉을 수 있는 자를 존경해. 그래서 그 자만은 쏘지않았던 거야. --下略--

라고 말한다. 洪命憲의 <林巨正> 「火賊篇 三」 중 임격정이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가던 선비들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암시를 받은 이야기일⁴⁾ 가능성이 다른 한 이 대목은 한 비평가의 말과⁵⁾ 같이 일대 「急轉」이라 할 만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14명의 목사들에 단 한 사람의 殉教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 중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에는 물론 다른 목사들에 등을 돌린 사람들은 背教者요 背信者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목사들의 경우도 (정신이상을 일으킨 한목사는 특수한 경우로 예외로 처야 할 것이다.) 神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단 한번도 자기의 신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자기와 자기 神의 긴밀한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다고는 한 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는 박목사는 神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여 그 아들과 義絶을 하게 될만큼 광신적인 사람이다. 그런 그도 죽음의 눈 앞에 다치자 기도를 해 달라는 동료 목사들의 부탁을 거절한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의롭지 못한 하느님」에게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로 그는 神 없이 절대 고독 속에 죽음을 맞고 있다. 박목사의 위와 같은 최후의 말에는 神의 부정에서 끝나지 않고 믿었던 神에 대한 배신감에서 온 원망과 저주의 느낌마저 비치고 있다.

마지막 한 사람 신목사는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자에게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고 대항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신앙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

4) 임격정은 양반이라고 으스대는 것이 밋다하여 서림이 불들어 온 8명의 선비들 중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정생원 등 4명을 차례로 살해한다. 그러나 “양반이 죽으면 죽었지 도둑놈 앞에 무릎은 꿇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굽히지 않고 꺾정을 향하여 「도둑놈」 「대적놈」이라고 호통을 친 한생원은 살려준다. 또 그들은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선비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말문이 막혀 죽인다고 얼른데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하자 그도 살려보낸다. 洪命憲의 <林巨正>은 작가 金恩國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널리 읽혔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 이야기는 거기서 착상을 빌어온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洪命憲, <林巨正> 「火賊篇 三」, (사계절, 1985), pp. 12-34 참조.

5) 李甫永, “奇妙한 宿命”, 『現代文學』, 1969. 9, pp. 292-293.

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神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다음의 인용문에 나타난, 그가 뒤에 이 소설의 나레이터 이대위에게 한 말들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평생토록 난 신을 찾아 헤매었소.” 그는 소근거리 듯 말했다. “그러나 내가 찾아낸 것은 괴로움과… 죽음, 냉혹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 뿐이었소.”

“그리고 죽음의 다음은?”

“아무 것도 없소! 아무 것도!”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엄청난 고뇌가 일고 있었다.

이상에서 목사들의 집단 피살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완전히 풀린 셈이다. 그러니까 6·25사변이 일어나던 날 평양에서 있었던 목사들의 집단 총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한 살인만행이었고 떠들썩했던 순교이야기는 쓰디쓴 한 바탕의 헤프닝이 되고 만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컬 한 것은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敎職者들과 신도들의 감격을 자아낸 목사들의 집단 순교 사건이던 것이 결국 다른 사람 아닌 목사 자신들에 의한 神의 부재 증명으로 反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神不在」의 확인은 이 소설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두번째 미스터리인 潔癖의 성직자 신목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처음 자신은 12명의 목사와 격리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자신이 그들 12명이 총살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앞서 한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 그러자 신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안 신도들이 폭도로 변해 그의 집을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다. 그런데도 그는 그 위에 다시 자신이 그 12명의 목사를 배신했다고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때는 정소좌의 폭도로 장대령과 일부 목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환히 알고 있는 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신도들은 더욱 격분하여 폭동이라 할 만한 소란을 일으켜 그 와중에 한목사는 죽게 되고 신목사도 신변이 위태롭게 되기까지 하지만 그의 스스로를 궁지로 모는 거짓말은 계속된다. 그는 목사들이 순교하는 순간 감감하던 구름이 흩어지고 밝은 달빛이 순교자들의 미소 띤 얼굴을 비쳤으며 「나의 아들」인 목사들이 싸움에 이겼다고 하는 하늘로부

터의 하느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거기다 신목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다 이대위에게 자신의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신앙,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이 의문은 소설의 후반에 이르러서 극적으로 풀리게 된다. 신목사는 中共軍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는 바람에 平壤을 떠나게 된 이대위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해 온 이유를 말해 준다. 신목사와 이대위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前略- 고통이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움켜쥐고는 그들을 절망의 바다로 떠내려 보내고 있소. 우린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과 환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환상을 중단 말입니까? 무덤 이후의, 죽음 이후의 환상을 주관 말입니까?”

“그렇소!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이요! 절망은 이 피곤한 생의 질병이요, 무의미한 고통으로 가득찬 이 삶의 질병입니다. 우린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절망을 때려 부수어 그것이 인간의 삶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단순한 겉셈이로 위축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신목사의 이, 사람들을 절망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상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는 장대령도 같은 입장이다. 장대령은 韓國人들이 6·25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모두 알게 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니면, 이 전쟁 역시 바보 같은 인간들의 부패한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다른 모든 전쟁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이 전쟁도 추잡한 국가간의, 혹은 썩은 정치인들 사이의 맹목적 권력 투쟁이 빚은 구역질 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셈인가? 또 이 어리석은 전쟁을 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죽어갈 것이며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무고한 제물로 희생된 것이며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국제 정치 무대에 꿈쩍없이 잡혀버린 죄 없는 불모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떠들 작정인가? -下略-”

이와 같이 말한 장대령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기어이 알게 해서는 안된

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목사와 장대령의 진실·진리의 인식 방법은 實用主義 (pragmatism)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實用主義者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 생활의 본질은 情意的 활동에 있으며 知的 認識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한 진리의 탐구는 무의미한 것이며 진리는 반드시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생활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진리도 모든 사람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절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는 우리의 경험적 知覺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 知覺의 眞僞를 결정하는 표준은 그의 실제적 효용에 있다. 즉 생활에 유익한 결과를 안겨 주는 것이 진리요 그에 반하는 것이 허위이다. 제임스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본래 실행에 있다. 따라서 知的 情意活動을 위해 존재하며 인식은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동이 없는 理性은 무가치 한 것이며 진리를 위한 진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우리들의 지식의 진리성은 그 실천적 결과에 의하여 판정될 것이며, 실제 생활상 효과가 있는 것은 진리이며 효과가 없는 것은 허위이다. 이 사상은 설러에 의해 더욱 구체화된다. 그는 초개인적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플라톤의 설을 배격하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프로타고라스의 설을 채택한다. 즉 사유와 관념은 모든 경험의 결과에 의해 생긴 것이며 그것들은 감각에, 주어진 것에 의존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眞僞는 인간에 있어서 그 성과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며 진리의 표준은 결국 주관적 만족에 귀결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인간의 제작물이며 주관에 관계 없는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⁶⁾ 그러므로 진리는 전혀 인간적이며 상대적이다. 神은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 니이체에게서 이러한 實用主義의 경향이 보인다는 것은 소설 <殉教者>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시사를 준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神의 존재를 부정한 신목사가 바로 초개인적인 절대진리를 부정하고 인간적,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그러니까 제3자가 보았을 때 신목사가 거짓을 말한 것이지 신목사 자신으로 볼 때 그의 그러한 언행은 사람들을

6) 이상 李載萬·趙鏞一, 「哲學概論」(東星社, 1984), pp. 140-143.

7) 이 소설에서 이대위가 자신의 진실·진리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며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장대령이 「한데 진리라-그래, 진리란 게 뭐야?」라고 한 반문도 신목사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악,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진리·진실이었던 것이다.

神도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성직자 생활을 해야 한 신목사는 저주 받은 인간이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⁸⁾ 필자는 그러한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새로운 신앙이었으며 거기에서 그의 삶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Ⅲ. 神 없는 세계에서의 救援

갑자기 神의 존재가 부정된 세계는 니힐리즘으로 굴러 떨어지기 쉽다. 이는 이미 前世紀에 歐美의 정신세계가 겪은 바 있다. 니체에 의하면 니힐리즘·허무주의에는 인간이 가치·의미·소망이 철저하게 거부된 세계에서 빠져 들게 된다. 곧 허무주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그 가치를 상실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종래 歐美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다.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의 몰락에서 니힐리즘이 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⁹⁾ 어느 날 갑자기 그 때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살아 온,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존재가 없어진 세계는 善도 惡도 없는 혼돈과 암흑의 세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서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殉教者>는 거기서 거듭 神의 존재가 부정된 소설이다. 그리고 이 소설의 全篇에는 허무주의적인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 이 소설의 중간 중간에는 바람에 흔들려 헛되이 울리고 있는 교회의 종이 등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 대위와 그의 친구 간의 대화가 그 예다.

바람이 몹시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길 건너 종루의 종이 가늘게 땡그렁거리고 있었다.

“저 종을 어떻게 좀 하질 않고서!”

“종루에 올라가기가 위험해서 그래.”

내가 대답했다.

8) 李甫永, op. cit., p. 287.

9) 니이체, 「니이체 全集 제4권 · 權力에의 意志(朴換德譯)」(東星出版社, 1974), p. 21.

그는 별안간 몸을 돌려 내게로 다가섰다. “저 교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마쳐…… 마쳐……”

神을 잃은 교회의 종소리는 죽은 神을 弔喪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부수지 다만, 뼈대만 남은 교회는 기독교의 殘骸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세계의 종언을 앞에 두었을 때와 같은 허망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소설은 장소적, 시간적 배경도 전반적으로 어둡기 짝이 없는 것이다.

중앙교회의 회색 종탑 위 십자가 끝이 기우는 저녁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눈가루가 바람에 날려 폐허위를 스치다가, 지나가는 지프며 트럭뽕무니를 따라 가기도 하고 길가를 휘돌아 치기도 했다. 땅치미와 그들이 언덕배기로 기어 올라가면서 반신불수가 된 교회를 침범하고 이윽고 종탑까지도 삼켜 버렸다. 땅저미 속의 들쭉날쭉한 형태들이 점점 시커멓게 변하면서 침울한 정적이 온 도시에 내리 덮히기 시작했다.

위의 인용문 중 傍點 친 (傍點은 필자가 친 것임) 단어들은 모두 암울·암흑의 심상어 들이다. 위의 문장 뿐 아니라 <殉教者>에는 회색의 하늘·회색의 두루마기 등이 빈번하게 등장해 회색은 이 소설의 바탕색을 이루고 있다. 이 잿빛은 분위기를 암담하고 우울하게 해 이 소설에 허무감을 더욱 고조시켜 주고 있다.

12명의 목사가 순교하여 거룩한 회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 중간에 이르러 정소좌의 말처럼, 공포에 떨며 「개처럼」 죽어간 것이 밝혀지는 이 소설은 처음부터 허무주의에 빠져들 소지를 다분히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을, 이 소설을 허무의 나락에서 구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인공 신목사다.¹⁰⁾ 신목사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자 악은 절망이라고 보고 있다. 그

10) 이 소설의 주인공을 이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鄭漢淑의 “金恩國 長篇小說 審判者” (『月刊 文學』, 1969. 9, p. 234.), 徐洸善의 “苦痛과 希望과 사랑” (『韓國文學』 1976. 6, p. 308.)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하인리히 뵐 역시 이대위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다. 하인리히 뵐, “뵐이 쓴 金恩國論,” 『文學思想』, 1972. 12, p. 43. (단, 이 글은 번역된 것이라 원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대위를 주인공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어떤 소설의 주인공은 그 소설의 주제의 형상화에 가장 깊이

는 절망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만이 가진 존엄성을 짓밟아 인간을 비참한 轉落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이 소설의 시간 훨씬 이전에 몸소 체득해 알고 있는 것이다. 신목사는 병으로 그들의 첫 아들을 잃었을 때 온종일 기도하고 단식하는 그의 아내가 못마땅하여 그녀에게 저승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죽어도 그들의 아들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해 버린다. 신목사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절망감을 주체할 수 없어 얼마 안가 산 송장처럼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본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구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여준 목사들의 처참한 최후 모습을 본 다음 그의 그러한 생각은 더욱 확고한 고정관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신목사는 인간이 비록 짓이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패배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유다가 되어 있지도 않은 殉敎者를 만들어 내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신도들 앞에서 강조한 것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殉敎者들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오.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소, 절망하지 마시오, 천국이 가까웠고 우리의 승리가 임박했으니 절망하지 마오. 절망해선 안 돼오, 안 돼!’

라고 말했다고 하고 목사들의 순교의 순간에 들려온 하느님의 목소리도 「절망하지 말지어다. 절망하지 말지어다」 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신목사 자신이 하고자 한 말을 그들의 입을 빌어 한 것이다. 이 소설 속의 신목사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와 있다. 한 평론은 신목사가 대중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자유를 부정하고 진실을 인식할 권리를 그들로부터 박탈했다고 말하고 그가 진실을 독점하고 우매한 대중에게는 「희망이라는 환상」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¹¹⁾

또 鄭明煥은 대중을 속여 구원에의 희망을 유지케 하고 자기 혼자 고민의 십자가를 짊어지려 한 신목사의 행동을 아편 상인의 작태 아니면 일종의 제스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殉敎者>의 주인공은 신목사일 수 밖에 없다.

11) 李東夏, op. cit, p. 412.

쳐 게임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¹²⁾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實用主義의인 확고한 사상에서 한 그와 같은 신목사의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와 같은 비난은 평화시, 한가한 시간에 벌어진 神의 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 나왔다면 귀 기울일만한 것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쟁이란 극한 상황 하에서 인간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하고자 한 善意志의 행동을 「진실독점」 또는 「아편 상인의 작태」라고 까지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신목사가 처음부터 속일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전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러한 비난은 지나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신목사의 행동과 사상에서 우리는 實存主義者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實存主義者에는 두 갈래가 있다. 그는 야스퍼스, 가브리엘 마르셀로 대표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實存主義者와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자신을 들 수 있는 無神論的 實存主義者가 그것이라는 것이다.¹³⁾ 前者는 사람이 자기 이상으로부터의 人格神의 구원을 믿는 신앙을 절대화함으로써 참된 자신의 삶의 뜻과 가치를 찾으려 한다. 한편 後者는 神의 구원 없이 자기 의지를 절대화시켜 자기 實存의 의의와 가치를 찾으려 한 사람들이다. 無神論的 實存主義 사상의 핵심에 닿는 데는 「實存은 本質에 先行한다」는 命題에 접근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 같다. 현실존재가 사물인 경우 만물은 본래의 실재 곧 만물의 원형으로서의 이데아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때의 단물은 이데아를 원형으로 하여 만든 模作, 실물의 그림자, 그림, 영상이다. 그러므로 존재에 앞서 본질이 있다.

그러나 사물 아닌 인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인간은 인간이므로 책상이나 책 같은 물건처럼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은 단순한 존재나 생존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 존재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 갈 수 있는 現實存在다. 곧 사람은 現實存在로 개별성과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란 그 개별성과 주체성을

12) Ibid, p. 410에서 재인용

13) 장 폴 사르트르,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方坤譯)」(文藝出版社, 1992), p. 13.

제거하고 일반화할 때 성립한다. 일반화되지 않은 인간의 現實存在는 본질 밖으로 나와서 각자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그것은 누구인가?'고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의 개별적인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자요, 더구나 여러 대상을 만드는 자인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만일 神이 존재한다면, 神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의 본질은 神의 마음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無神論의 實存主義者에게는 神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개념에 의해 규정되기에 앞서 먼저 實存하고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사람에 있어서 본질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정해가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實存主義의 제1의 원리이다'라고 한 말에¹⁴⁾ 그 사상은 응축되어 있다. 神의 존재를 부정한 신목사는 한 사람의 無神論의 實存主義者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정하여 만들어 간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총살이란 절망적 상황에서 그 절망을 극복하고 자신을 구한다. 듀란트는 인간이 자신을 기탄없이 절망에 내맡길 때, 비로소 참다운 實存을 달성 할 수 있는 「飛躍」이 수행된다고 말했다.¹⁵⁾ 듀란트의 이, 「기탄없이 절망에 내맡김」은 하이데거가 말한 「先驅(Vorlaufen)」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져 있는 존재이나 그저 던져져 있기만 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내던진다(投企=Entwerfen)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기획하고 계획한다는 뜻이다. 이 때의 인간은 던져졌다는 과거적 필연에 그저 밀리기만 하거나 아무 하는 일 없이 막연히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 나간다. 던져져 있으면서 앞으로 내던지는(被投的 投企=geworfener Entwurf) 존재는 죽음에 대해서도 앞서서 기다리거나 불안에 허덕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질러(先驅=Vorlaufen) 죽음을 떠날 것을 결의함으로써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는다.¹⁶⁾ 살인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14) 사르트르,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方坤譯)」(文藝出版社, 1977), p. 20.

15) W. 듀란트, 「虛無主義(朴鍾雄譯)」(學生文化社, 1962), p. 236.

16) 韓釜淑, 「實存主義」, 「現代의 哲學(韓釜淑·車仁錫 共著)」(서울大學校 出版部, 1982), p. 21.

신목사의 행동은 바로 듀란트가 말한 「절망에 내맡김」이요 사르트르가 말한 「先驅」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목숨을 구하고 그에게는 인간에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것이다. 李東夏가 신목사가 처형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을 것이라 한¹⁷⁾ 것도 그것을 지적한 말일 것이다.

신목사는 그렇게 하여 그 지옥의 死地에서 자기 구원을 했지만 그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유엔군의 平壤 진주 중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그는 신도들에게 神을 주고 殉敎者를 주고 자신이 유다가 됨으로써 그들을 절망에서 구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없는 인간도 있었으니 누구보다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神도 來世도 없는 황량한 세계에 외롭게 남겨진 것이다. 그는 이를 자신이 진 십자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는 모두가 다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이 지려한 것이라고 말한다. 십자가는 회생을 상징한다. 신목사는 그의 이웃, 기독교인들을 절망에서 구하고 단신으로 無神의 虛無와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신목사가 바다 없는 虛無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인리 쉴은 <殉敎者>의 두 개의 감동적인 모티브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⁸⁾ 그 두 개의 모티브 곧 작품의 정신 중 하나는 작가가 <殉敎者> 책 머리에 알베르 카뮈에게 바친 獻詞와 관련된 것이다. 작가는 카뮈의 '이상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통찰이 자신이 전선의 참호와 병커에 있을 때 虛無主義를 극복하게 해 주었다고 하고 있는데 쉴이 말한 모티브 중 하나는 바로 이 '이상한 형태의 사랑'이다. 이는 카뮈의 「反抗的 人間」 제5장에 나오는 말로 자기 회생의 정신에서 우러나온 자기모순, 자기기만을 적잖이 간직한 채로의 헌신적 행동을 의미한다.¹⁹⁾ 다른 하나는 작가가 역시 책 머리에 인용한 휠더린의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중 「놀랍도록 성실한 사람」이다. 쉴은 이 「이상한 형태의 사랑」과 「놀랍도록 성실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유혹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목사

17) 李東夏, op. cit., p. 409.

18) 하인리히 쉴, "쉴이 쓴 「金恩國論」", 『文學思想』, 1972. 12, p. 47.

19) 李甫永, op. cit., p. 292.

는 자기 회생을 통한 인간 사랑에서 스스로 진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회생·사랑만이 절망을 극복하고 고통이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신목사의 신념은 神 없는 세계에서의 하나의 啓示와 같은 것이다. 신목사는 이대위와의 이별에 앞서 “인간을 사랑하시오, 대위. 그들을 사랑해 주시오! 용기를 갖고 십자가를 지시오. 절망과 싸우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 유일한 인간을 동정해 줄 용기 말입니다.”라고 해 마지막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목사의 새로운 신앙은 주변으로 확산된다. 먼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교회가 끼인 어떠한 일에도 동참하기를 거부하던 박대위가 신목사에 끌려 스스로 있지도 않은 殉敎者들을 위한 추도예배 행사에 참여해 신목사의 신앙을 같이 가진다. 다음은 이대위로 그는 처음 신목사에 대해 막연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교나 종교 같은 것은 모두 배격한다. 더욱 거짓으로 殉敎者를 만드는 일에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서 진리 그리고 진실만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던 그가 신목사의 고백을 통해 그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동안 자신이 그에게 지나쳤던 일을 사과하고 눈물을 흘린다. 신목사의 진실·진리를 안 이대위는 신목사가 피난민들 앞에서 神을 찬양하는 聖經 詩篇을 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 갑자기 온 몸에 한기가 들을 느낀다. 그는 다시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어지러워져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대위의 이와 같은 증세는 實存主義에 있어서의 存在論的 嘔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존 러셀 테일러에 의하면 이는 인간이 理性과 實存의 알력으로부터 비어져 나가는 경험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깊은 存在 理由의 不在, 일상의 바쁜 생활의 헛됨, 人生苦의 무의미함에서 오는 嘔吐다.²⁰⁾ 이대위에 있어서의 嘔吐는 그 중 세번째 곧 인간이 받는 고통의 무의미함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뒤 이대위는 신목사와 함께 신목사의 새로운 신앙을 같이 가지게 된다.

그런 다음 이 새로운 신앙, 회생과 인간 사랑은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실행된다. 신목사는 유엔군의 平壤 철수가 임박했을 때 서울로의 피난을

20) Arnold P. Hinchliffe, 「不條理文學(黃東奎譯)」(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p. 1에서 재인용.

권유 받지만 기어이 이를 거절하고 피난민들을 돌보기 위해 의심의 여지 없는 죽음의 땅에 남는다.

또 서울로의 철수 길에 올랐던 軍醫官 민소령도 자신이 돌보고 있던 중환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하여 단신 平壤의 군병원으로 되돌아 가버린다. 또 박대위와 장대령도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몸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신목사의 새로운 신앙은 완성에 이르고 있다. 이 소설에서 사건의 배경은 갈수록 암담해지지만 영혼 구제의 빛은 밝아 온다고 한 말이 나온 것도²¹⁾ 그 때문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神 없는 세계에서 새로운 神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신목사다. 이대위가 신목사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에게 머리를 숙여 보인 뒤 물러나왔다. 神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웅얼거리는 기도 소리를 등 뒤에 남기고 나는 문을 닫았다.

여기서 傍點 친(傍點은 필자가 친 것임) 「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느님을 맹신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목사인 데 이 때의 신목사는 부정되어 없어진 神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이 소설의 어조를 참고로 하면서 行間을 수색해 보면 신목사는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살해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平壤에서 滿洲국경의 한 작은 읍에서, 서해안에서, 동해안의 어느 어촌에서 그를 보았다고 해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믿는다. 신목사의 이와 같은 遍在은 어떤 신비감을 띠고 있다. 金炳翼은 이를 부활한 예수의 顯現과 같다고 하고 있다.²²⁾

작가는 여기서 神 없는 현대에 있어서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인간 자신이며 희생과 사랑만이 神이 없는 세계에서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는 구원의 길이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21) 李甫永, op. cit., p. 290.

22) 金炳翼, “작은 始作의 意味”, 『文學과 知性』, 1970. 12, p. 390. 그는 이 글에서 신목사의 姓, 「신」이 神과 읽는 음이 같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IV. 결 론

金恩國의 장편소설 <殉教者>는 英文으로 발표가 되는데 전에 나온 韓國語版은 작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번역된 것이어서 이를 韓國文學 작품이라고 하기가 어려웠는데 1990년 작가 자신이 우리말로 쓴 결정판을 출판해 우리 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이 소설에 대한 작품론을 시도해 본 바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미스터리 소설의 기법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 공산주의자들의 韓國 목사 집 단살해사건의 진상을 밝혀가는 과정을 통해 神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 소설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神도 來世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목사들과 신도들에게 그러한 것의 존재를 역설하고 있는 신목사의 언행은 實用主義의 眞理 認識에서 나온 것이다. 實用主義者에 있어서 眞理는 絕對普遍的인 것이 아니라 相對的인 것이며 主觀的인 것이다. 이때 진리를 위한 진리의 탐구는 무의미한 것이며 眞偽 결정의 표준은 실제적 효용에 있다. 곧 인간 생활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眞理요 그에 반한 것이 虛僞인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神이 없는 세계에서의 진리·진실은 이와 같은 相對的·主觀的인 것이요 실제 효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신목사에게서 우리는 無神論的 實存主義思想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상에 의해 神이 없는 세계에서 허무주의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신목사는 인간은 어떠한 超越의 存在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現實存在라고 생각한다.

그는 살인자의 총 앞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살인자에게 대항하는데 이것은 實存主義哲學에서 말하는 「先驅」다. 곧 그는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앞질러 던지는 존재로서 죽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떠맡음으로써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은 혼자 無神의 허무와 맞서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神이 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實存主

義 철학자 알베르 카뮈가 말한 자기 희생·헌신의 행동인 '이상한 형태의 사랑'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결국 작가는 이 소설에서 神이 없는 현대에 있어서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인간 자신이며 희생과 사랑만이 神 없는 세계에서 虛無와 절망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神의 부재가 확인되고 있는 이 소설은 神·天堂을 잃고 있다는 의미에서 失樂園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인간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서 樂園을 찾으려 하고 있는 인간 긍정, 세계 긍정의 이야기라 해도 될 것이다.